



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- 도시의 승리

| | | |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주차 | 일시 | 4월 8일 09 : 00 상상베이스 107호 | |
| | 참여 학생 | 클럽원 정보 | 참석 여부 |
| | | 김채원 (2253149) | O |
| | | 지은채 (2451044) | O |
| | | 김진주 (2213050) | O |
| | 진도 | 도서명: 도시의 승리 | 진도페이지: 1p. ~ 146p. |
| 토론 내용 |  <p>[좌측부터 지은채, 김진주, 김채원]</p> <p>Q 1. 왜 사람들은 불편함이 많아도 계속 도시로 모여들까? A 김채원 - 사람들은 도시에서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로 모여든다고 생각한다. 지은채 - 도시에는 일자리, 교육,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. 김진주 - 경쟁이나 높은 집값같은 문제도 있지만,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단점보다 도시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도시를 선택하는 것 같다.</p> <p>Q 2. 저자는 도시가 인간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. 도시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회 발전이 가능했을까? A 김채원 -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.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살면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빠르게 공유된다. 지은채 - 발전된 환경 덕분에 경제, 과학, 문화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. 김진주 - 만약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면 지금처럼 빠른 혁신이나 협력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 같다.</p> <p>Q 3.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, 뉴욕 같은 대도시는 왜 여전히 인기가 많고 주거비가 비쌀까? A 김채원 - 아무리 인터넷과 화상 회의가 발달해도, 복잡하고 고도화된 지식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통해 가장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. 지은채 - 인재들이 한곳에 모이면 서로 아이디어를 경쟁하며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한다. 김진주 - 소통을 통한 효율이 아직은 극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.</p> | | |

| | | |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일시 | 4월 29일 09 : 30 상상베이스 108호 | |
| | 참여 학생 | 클럽원 정보 | 참석 여부 |
| | | 김채원(2253149) | O |
| | | 지은채(2451044) | O |
| | | 김진주(2213050) | O |
| | | | |
| | | | |
| 진도 | 도서명: 도시의 승리 | 진도페이지: 147p. ~ 216p. | |
| 2주차 |  | | |
| 토론 내용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좌측부터 지은채, 김진주, 김채원]</p> <p>Q 1. 도시의 높은 집값 문제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일까? A 김채원 -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.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. 지은채 - 지나친 집값 상승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김진주 - 수요가 많으면 희소성이 높아지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.</p> <p>Q 2. 저자는 도시의 경쟁이 발전을 만든다고 말한다.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지 않을까? A 김채원 - 나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경쟁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지은채 - 경쟁이 과도해지면 스트레스, 불안, 삶의 질 저하 같은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김진주 - 도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의 행복과 균형 있는 삶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</p> <p>Q 3. 도시의 빈민가를 보고 도시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? A 김채원 -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,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. 지은채 - 도시는 시골 지역보다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고, 일자리나 알바자리가 많으며,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. 김진주 - 도시의 빈민가는 문제가 아니라, 도시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.</p> | | |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3주차 | 일시 | 5월 13일 09 : 30 상상베이스 105호 | |
| | 참여 학생 | 클럽원 정보 | 참석 여부 |
| | | 김채원(2253149) | O |
| | | 지은채(2451044) | O |
| | | 김진주(2213050) | O |
| | | | |
| | | | |
| 진도 | 도서명: 도시의 승리 | 진도페이지: 217p. ~ 398p. | |




[좌측부터 지은채, 사서님, 김진주, 김채원]

토론 내용

- Q 1. 저자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야 혁신이 나온다고 설명한다. 그런데 코로나 이후 원격근무가 늘어난 지금도 이 주장에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?
- A 김채원 - 밀집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모여 살아야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티키타카를 통한 대화를 진행하다보면 혼자서는 떠올리기 힘든 부분이 변죽일 때가 많다.
- 지은채 - 온라인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만나서 회의하는 것이 소통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. 우리가 독서클럽도 직접 만나서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.
- 김진주 - 모든 인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대면이 좋다고 생각한다.
- Q 2. 도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은 불가피한 현상일까, 아니면 정책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까?
- A 김채원 - 정책으로 조절가능한 부분이있으면 차이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- 지은채 - 정책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불가피하게 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. 현실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려면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.
- 김진주 - 우리나라로 보면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시기는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한다.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시 | 5월 27일 09 : 30 상상베이스 107호 | |
| 참여 학생 | 클럽원 정보 | 참석 여부 |
| | 김채원(2253149) | O |
| | 지은채(2451044) | O |
| | 김진주(2213050) | O |
| | | |
| 진도 | 도서명: 도시의 승리 | 진도페이지: 399p. ~ 544p. |

| | | |
|-----|---|---|
| 4주차 |  | |
| | 토론 내용 | <p>[좌측부터 지은채, 김진주, 김채원]</p> <p>Q 1. 미래의 도시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?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?</p> <p>A 김채원 - 둘 다 중요하지만, 앞으로는 환경 보호가 조금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</p> <p>지은채 - 과거에는 도시 발전이 경제 성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, 그 결과 대기오염, 기후 변화, 자원 부족 같은 문제가 심각해졌다. 만약 환경이 계속 악화된다면 결국 사람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 역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.</p> <p>김진주 - 두 가지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.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.</p> <p>Q 2. 전원생활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자가 오히려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?</p> <p>A 김채원 - 교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주민보다 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고 한다. 마트나 직장에 가기 위해 매일 먼 거리를 직접 운전해야 하고, 넓은 단독주택을 냉난방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.</p> <p>지은채 -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아파트에 모여 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다.</p> <p>김진주 - 자연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 인간들이 도시에 뽁뽁하게 모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</p> |

| | No. | 클럽원 정보 | 후기 내용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활동 후기 | 1 | 김채원 (2253149) | 도시가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, 내가 도시에 살고 있어 느끼고 있던 안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. 도시가 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토론해보면서 타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. |
| | 2 | 지은채 (2451044) | 도시의 승리를 읽고 토론하면서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, 경제·환경·삶의 질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연결된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다. 또 도시의 발전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며, 미래의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. |
| | 3 | 김진주 (2213050) | 도시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아니라, 인류의 혁신을 이끌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며 지구를 지키는 가장 친환경적인 공간이다. 도시의 핵심은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. |
| | 4 | | |
| | 5 | | |